

# 냉전기 북한 지식인의 아시아 인식\*

— 서만일의 『인도기행』(1957)을 중심으로 —

고자연\*\*

## 〈차 례〉

1. '아시아'를 새롭게 인식하기까지
2. 신생 아시아의 정신, '아세아 작가대회'
3. 반자본주의·반식민주의 아시아: 『인도기행』 분석
4. 북한의 아시아 인식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50년대 중후반의 북한 기행문들을 바탕으로 당시 아시아 지식인들의 문화 교류 양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아시아 인식을 규명하며, 그들이 구성해나간 문화교류를 아시아적 지평에서 맥락화하여 냉전 아시아의 실제적 맥락을 해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그동안 북한 문학 연구에서도 기행문, 특히 아시아 기행문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1950년대 중후반 북한의 아시아 기행문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그 첫 번째 연구에 해당하며, 주 텍스트는 서만일의 『인도기행』이다.

서만일의 『인도기행』은 1950년대 중반에 본격화되기 시작한 '아시아 연대'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아세아 작가대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텍스트이다. 또한, 서만일은 조선작가동맹 산하 외국문학분과위원회 위원장, 조선작가동맹 부위원장, 조선-인도 문화협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희곡·시·동시·평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창작했으며, 북한의 1세대 소련유학과 출신으로 러시아어에 능통하여 번역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했던 중요한 작가이다. 그러나 1959년 숙청 이후 복권되지 못했고, 제대로 연구되지 못했는데, 본고는 서만일을 재조명하는 연구이기도 하다.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연수)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01041792)

\*\* 인하대 프린티어학부대학

본고는 『인도기행』을 중심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고찰했다. 먼저, 그간 제대로 연구된 바 없는 ‘아세아 작가대회’를 정리했다. ‘아세아 작가대회’는 전후 최초 아시아 작가대회로서 반동회의 이후 아시아 연대를 위한 실질적인 실천의 첫 행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다음으로 『인도기행』은 북한에서 처음 발표된 ‘자본주의 방문기’였던 만큼 동시기의 다른 북한 기행문들과 그 여행 경로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본고는 사회주의 진영(북한, 중국)에서 자본주의 진영(버마, 인도)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냉전의 횡단’이라는 시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 서만일의 눈에 비친 인도를 살펴봄에 그의 인도 인식과 그에 따른 아시아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는 인도를 여행한 다른 외국인들과는 다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제어] 북한 기행문, 1950년대, 냉전, 아시아 인식, 아세아 작가대회, 서만일, 『인도기행』

## 1. ‘아시아’를 새롭게 인식하기까지

이 글은 냉전기 북한 지식인의 아시아 인식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으며, 그 첫 번째 연구에 해당한다. 냉전기 북한 지식인의 아시아 인식 연구는 북한의 기행문들을 주요 텍스트로 하여 당시 북한의 지식인들이 각국 지식인들과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류하며 연대를 기획하고 시도하였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새로이 상상해나간 ‘아시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해방공간과 민족 내전의 시공간은 국경의 형식적 경계에 묶여 있지 않았다. 당시 지식인 특히 작가들은 사람들의 삶의 실제와 의식의 변화를 함께 겪으며 세계 혹은 아시아라는 지역 인식이 체화되는 과정의 정경들을 재현해주었다.<sup>1)</sup> 기행문은 이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이는 그동안 북한 연구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북한 기행문 연구<sup>2)</sup>인 동시에 신냉전사연구의 결여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냉전

1) 백원담, 『냉전기 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의 형성과 계편1』,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1』,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현실문화, 2008, 78쪽.

2) 아직 북한의 아시아 인식에 대한 연구는 진행될 바 없다. 그리고 북한의 기행문이 연구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2000년대 말~2010년대 초부터였고, 소련이나 중국 방문기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1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베트남 여행기와 몽골 여행기를 다룬 연구가 등장했고, 한설아의 인도·이집트·혹아프리카 방문기를 고찰한 연구가 나왔다. 그러나 이 분야는 아직 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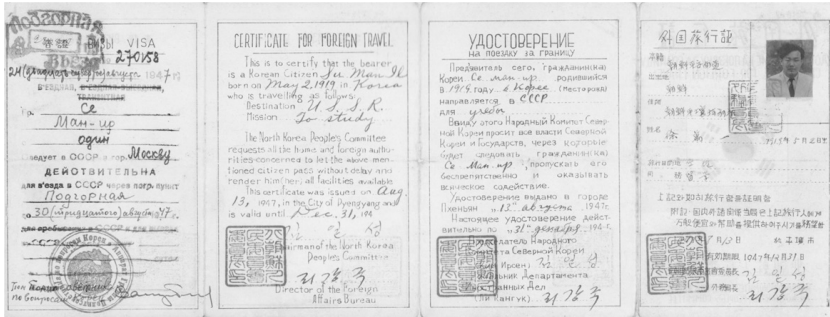
아시아의 문화구성문제 연구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기행문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담론만으로는 읽어낼 수 없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점들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냉전 아시아의 실제적 맥락을 짚어내는 데에도 유의미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북한의 주요 작가 서만일<sup>3)</sup>의 오체르크 『인도기행』(1957)<sup>4)</sup>이다. 『인도기행』은 조선작가동맹 부위원장 서만일이 1956년 7월 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세아 작가대회 준비위원회’에 북한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인도를 방문했던 여정을 기록한 글로 여타 북한의 기행문들과는 변별되는 솔직하고 풍성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인도기행』은 대부분의 북한 텍스트들과 달리 이데올로기로 점철되지 않고 작가 개인이 자기의 생각과 내면을 자유롭게 담아낸 보기 드문 텍스트이다. 이런 성격의 『인도기행』이 집필·출판될 수 있었던 데에는 운명적으로 맞물린 세 가지 요인이 있었다. 첫 번째 요인은 작가 서만일의 개인적 성향이다. 『인도기행』에는 작가의 인간에 대한 시선과 타문화를 대하는 태도 등이 잘 드러나 있는데, 특히 인민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잘 담겨 있다. 또한, 타문화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의 소련 유학

---

가 시작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남한의 기행문들을 중심으로 한 냉전기 한국 지식인들의 기행문 연구나 냉전 아시아 인식 연구들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꾸준히 축적되어오고 있는데, 이 연구들에는 북한의 시선이 제외되어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북한 기행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임유경, 「‘오빠꾼’과 ‘조선사절단’, 그리고 모스크바의 추억」, 『상허학보』 27, 2009; 임유경, 「소련 기행과 두 개의 유포피아: 해방기 “세조선”의 이상과 북한의 미래」, 『민족문화사연구』 61, 2016; 이상우, 「이태준의 기행문 『위대한 새중국』에 나타난 중국인식」, 『통일인문학』 67, 2016; 윤대영, 「195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 『역사와 경계』 87, 2013; 유임하, 「1955년 북한 사회의 베트남 방문과 베트남이라는 십상지리의 탈식민적 구성」, 『겨레어문학』 60, 2018; 박태일, 「윤세평의 몽골 기행문학」, 『한국지역문화연구』, 2019; 고자연, 「한설야의 제3세계 인식」, 『상허학보』 55집, 2019. 등등.

- 3) 서만일은 조선작가동맹 외국문학분과 위원장, 조선작가동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시·희곡·시나리오·평론·번역 등 다양한 장르에서 필력을 자랑한 1950년대 북한의 주요 작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한설야와 마찬가지로 국제 대회에 조선 대표로 참석하고, 조선을 방문한 외국 작가들을 맞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각국 지식인들과 교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1958년 말에 숙청당한 뒤 지금까지도 복권되지 못한 채 지워져버린 비운의 작가이다. 서만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최근에 나온 김성수, 「한국-조선 문학의 탈정전화와 숙청 작가 서만일, 김창식의 복권·복원」, 『민족문화사연구』 76, 2021.이 유일하다. 김성수의 주장대로 서만일은 남한의 연구를 통해서라도 복권·복원되어야 하며, 본고 역시 서만일 연구에 속한다.
- 4) 서만일, 『인도기행』, 조선 작가 동맹 출판사, 1957.



[그림1] 서만일 외국여행증: 1947년 8월 13일 발급  
 여행목적지: 소련 / 용무: 유학

시절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한다. 서만일은 1947년 8월에 소련 유학생으로 파견되어 모스크바 고리끼 문학대학에서 6년간 수학했다. 유학하는 동안 러시아어로 시집을 출간<sup>5)</sup>하기도 하고, 세계 청년 축전 조선대표단을 수행하기 위한 재소 유학생에 선정되어 축전에 참가<sup>6)</sup>했으며, 여러 국제 행사에 조선대표로 참석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는 또한 소련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녀와 함께 귀국했다. 그의 소련에서의 행적들을 통해 그의 유학 생활이 비교적 자유로웠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경험들로 그는 타문화에 대한 보다 유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두 번째 요인으로 서만일이 인도를 방문(1956년)하고 『인도기행』을 출간(1957년)했던 시기의 북한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들 수 있다. 1956년은 북한 역사상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해로, 전후복구 3개년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고,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와 제2차 작가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치·경제·문화예술 등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의미했다. 비록 '8월 반종파 투쟁'<sup>7)</sup>이 있기는 했으나 적어도 1958년 10·11월 김일성의 교시가 내려오

5) Се Ман Ир. *Моя Корея*. Библиотека Огонёк № 4, 1953.  
 6) 서만일, 『항가리 靑年祝典記』, 1949, 자필본. RG242, SA2005 6/47.  
 7) 1956년 8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김일성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연안파와 소련파의 시도였다. 정치사적으로 김일성 체제의 최대 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 김일성 일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조우찬, 『북한 갑산과 연구: 기원, 형성, 소멸』,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기 전까지 북한은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사회문화적으로 유연한 사고와 표현, 논쟁이 가능했다. ‘아세아 작가대회’나 『인도기행』 출간이 1년만 미뤄졌더라도 서만일의 『인도기행』은 세상에 내놓아질 수 없었을 것이다.

세 번째 요인으로는 ‘아세아 작가대회’가 민간차원에서 기획된 행사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기획된 행사의 경우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행사의 모든 과정과 공개 범위 등 여러 제한과 제약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다. 아세아 작가대회는 인도 작가들의 주도로 기획된 민간차원의 행사였으며, 더욱이 이번에는 서만일이 아세아 작가대회 준비위원회 참석차 통역 한 명만을 대동하여 인도를 방문했던 만큼 여러모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한편, 북한이 아시아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아시아·아프리카 회의(A·A회의, 반동회의, 이후 ‘반동회의’)가 열린 1955년 즈음이었다. 북한이 분단 직후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소련의 강력한 자장 아래 있었다면,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중국과 혈맹관계를 맺게 된다. 이 시기 매체들에 소련과 중국 이외에는 몇몇 사회주의 형제국 정도만 가끔 다뤄질 뿐 다른 국가들은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을 보면 이때까지 북한에서 중국과 소련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인도와 중국을 주축으로 과거와 구별되는 새로운 아시아, ‘각성된 아시아’이자 ‘주체적인 아시아’가 기획·상상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 북한 역시 이 새로운 ‘아시아’를 인식하게 되었다.

반동회의는 아시아-아프리카 세력권이 미소(美蘇)의 세력권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시점ियो, 세계사의 ‘객체로부터 주체로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사건이다.<sup>8)</sup> 주지하듯이 남한과 북한은 모두 반동회의에 초대받지 못하여 양쪽 모두 바깥에서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반동회의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만큼 남한 역시 반동회의와 그 외의 관

문, 2016, 149쪽; 김성수·고자연, 『예술의 특수성과 당(黨)문학 원칙 - 1950년대 북한문학을 다시 읽다』, 『민족문학사연구』, 2017.12, 253쪽.

8) 여정동, 『아시아는 변형하고 있다: 전개될 아시아의 새 양상』, 『청맥』 2권 5호, 1965, 33쪽.

련된 대회들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반면, 북한은 반동회의의 소식을 연일 『로동신문』에 소개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며, 비록 반동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었으나 그보다 보름 앞서 뉴델리에서 열린 ‘아세아 제국회의(諸國會議)’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의 적극성을 보였다.<sup>9)</sup>

북한은 반동회의를 계기로 공산국가로 국한되는 진영외교를 벗어나 외교정책의 다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남한과 국가 정통성을 두고 외교적 경쟁체제에 돌입하던 때이기도 했다.<sup>10)</sup> 이에 1956년 4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반동회의의 성과를 ‘반식민주의’와 ‘평화’로 평가하였고, ‘중립국’ 관련한 새로운 대외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아세아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침략과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할 것이며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도, 비르마, 인도네시아, 일본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며 기타 아세아 인민들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야 하겠습니까!<sup>11)</sup>

중립국 곧 ‘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나라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대외정책이 제시된 얼마 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데, 바로 ‘아세아 작가대회(Asian Writers’ Conference)’였다. 앞에서 언급한 ‘아세아 제국회의’처럼 ‘아세아 작가대회’도 다른 대회들에 비해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는데, 두 대회 모두 아시아·아프리카 연대회의 및 아시아·아프리카

9) 아세아 제국회의에 참석할 북한 대표단의 단장은 박정애였다. 그 외의 몇 명의 단원이 동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중 한 사람은 한설야였다.

\* 주 텍스트가 북한 자료인 관계로 텍스트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영문명이나 한자를 병기하기로 한다.

‘아세아 작가대회’ ‘아세아 제국회의’처럼 특정 행사를 지칭하는 경우에만 ‘아세아’라고 표기하고 그 외에는 최대한 ‘아시아’로 표기하겠다. 또한 텍스트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거나 그와 밀접하게 서술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조선’이라 표기하고, 논의 서술에서는 최대한 ‘북한’으로 표기하겠다.

10) 오영숙, 『신생독립국의 자기인식과 아시아 상상-코스모폴리타니즘과 민족주의 사이의 한국영화(1957~1960년대)』, 『대중서사연구』 24호, 2010, 279~280쪽.

11) 김일성, 『자료102: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진술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1956년 4월 23일』, 김준엽 편, 1974 『북한연구자료집 2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684쪽;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0, 77쪽, 재인용.

카 작가대회로 확장되기 이전에 아시아적 문제군을 집약하고, 아시아적 문제군에 기초해 세계평화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우선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sup>12)</sup> 무엇보다 아세아 작가대회는 사실상 아시아 연대를 위한 국제 모임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첫 자리인 셈이었으므로 북한의 아시아 인식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살펴봐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 하겠다.

아세아 작가대회는 1956년 12월에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를 위해 먼저 본 대회보다 약 5개월 전인 7월 말에 뉴델리에서 ‘준비위원회’가 열렸다. 이때 북한 대표로 조선작가동맹 부위원장 서만일이 참석하였고, 그는 이 여정을 『인도기행』(1957)으로 남겼다.

아세아 작가대회는 아직 제대로 정리된 적이 없으므로 본고는 먼저 아세아 작가대회를 간단하게 정리하며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인도기행』에 나타난 서만일의 인도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새롭게 형성되어가는 아시아 인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신생 아세아의 정신, ‘아세아 작가대회’

비동맹운동의 실질적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반동회의는 각국의 상호 간 이해를 촉진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의 하나로 문화협력의 증진을 꾀했다.<sup>13)</sup> 세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아시아·아프리카 연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천명하는 자리였으나 그 자리에 모인 아시아·아프리카의 나라들 모두 그 누구

12) 백원담, 『아시아에서 1960~70년대 비동맹/제3세계운동과 민족·민중 개념의 창신』, 『냉전아시아의 문화풍경2: 1960~1970년대』, 현실문화, 34쪽.

\* 이 글은 ‘아세아 제국회의’를 본격적으로 천착한 연구이기도 하다.

\* ‘아세아 작가대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고자연, 『한설야의 제3세계 인식』, 『상허학보』 55집, 2019., 이병한, 『붉은 아시아: 1945~1991 동아시아 냉전의 재인식』, 서해문집, 2019.에서 부분적으로 다룬 바 있다. 인도-중국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는 하나 ‘아세아 작가대회’를 비교적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는 Jia, Yan, “Beyond the ‘Bhai-Bhai’ Rhetoric: China-India Literary Relations, 1950~1990”, PhD thesi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19.가 있다.

13) 위의 글, 41쪽.

보다 서로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자리이기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아프리카의 실질적인 연대는 상호 간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했으며, 이에 가장 유효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문화협력이 제안되었다.

반동회의에서 아시아 국가 간 문화적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인도의 네루(Jawaharlal Nehru)였다. 그리고 회의 이후 귀국한 네루에게 ‘아세아 작가대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인도의 진보적인 작가 아난드(Mulk Raj Anand)였다.

아난드는 네루를 설득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인도의 다른 작가 차뜨르웨이(Banarsidas Chaturvedi)와 꾸마르(Jainendra Kumar)와 함께 같은 해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 평화 리사회(World Peace Congress in Helsinki 1955) 자리에서 ‘아세아 작가대회’를 제의했는데, ‘아세아의 문화적 전통을 공동으로 계승하며, 세계 평화를 공고히 하는 위업에 신생 아세아 인민들의 역량을 집결시킴’으로써 아세아 작가들의 대동단결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sup>14)</sup>

그렇게 1956년 12월 아시아 각국의 작가 대표들이 ‘아시아 문화연대’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한자리 ‘뉴델리’에 모였다. ‘아세아 작가대회’는 전후 최초 아시아 작가대회로서 반동회의 이후 아시아 연대를 위한 실질적인 실천의 첫 행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선행된 아름다운 전통을 살려 보자는 것이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남의 말을 듣느라 자연히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앞서 나가는 벼들을 본따고 뒤떨어진 벼들을 이끌어 주게 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일까요? 그렇게 되면 모름지기 우리는 아세아 민족의 문화 유산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계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한 아세아 인민의 단결이라는 커다란 목적에 그것을 복중시키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또 하나의 위력 있는 무기가 될 것이 아닙니까!』<sup>15)</sup>

14) 서만일, 『인도기행』,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69쪽.

15) 위의 책, 78쪽.



인용된 부분은 아난드가 서만일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자신이 아세아 작가대회를 제의한 이유를 밝히는 장면이다. 아시아의 국가들 대부분은 열강의 식민 통치 아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로 전락한 채 길게는 몇 세기를 지냈고, 이 시기 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는 같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었음에도 지배국의 통치에 따라 서로 다른 근대화를 겪으며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아시아 연대를 외치며 한자리에 모였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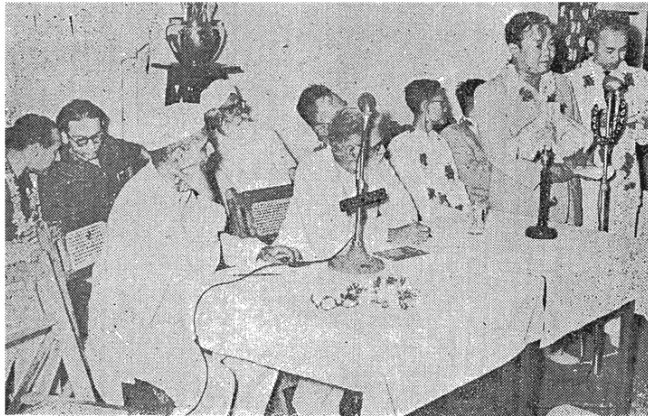
[그림2] 몰크 라즈 아난드  
『인도기행』 중에서

서로에 대한 무지에 놀라고 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일례로 아난드는 자신이 불교 연구가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불교가 전파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서로 친선의 정을 나누었던 선조들의 전통을 ‘미이라’로 만든 것이라며 통탄한다.

아난드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아세아 작가대회는 역사적으로 아세아에 공통된 역사와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문화를 발굴해서 공동유산으로 계승해나감으로써 단절되었던 아세아가 이어지고 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서 기획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연대는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진영을 형성하여 세계평화를 지키는 힘이 되리라는 논리였다. 결과를 알고 있는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극히 이상적이고 순수한 발상이었지만, 아시아 스스로 아시아에 축적되어있는 오랜 역사와 문화·예술의 가치에 눈뜨고 그것을 서로 연대하여 아시아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방법의 모색이자 실천이었다는 점에서 아세아 작가대회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아는 서로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천적 첫 행보’에 해당하는 ‘아세아 작가대회’는 더욱 신중하게 준비되어야만 했다. 하여 주최 측인 인도는 본 대회에 5개월 앞서 아세아 작가대회 준비위원회를 소집했는

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이 각이한 아시아 국가 대표들이 모여 함께 논의할 자리인 만큼 먼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인도, 중국, 파키스탄, 비르마(Burma), 일본, 월남, 쑤일론(Ceylon), 인도네시아, 캄보자(Cambodia), 네팔, 조선 등의 국가들이 준비위원회에 선발·초청되었고, 이 가운데 비르마, 중국, 인도, 조선, 네팔 및 월남 대표들은 직접 참석했으며, 쑤일론, 인도네시아, 일본은 본 대회에는 꼭 참석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위임장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1956년 7월 28일 저녁 6시 30분에 인도 뉴델리 웨스턴 코트에서 아세아 작가대회 준비위원회가 열렸다. 준비위원회에 앞서 비공식적인 예비 회의 또한 열렸는데 이는 아세아 작가대회를 처음 기획하고 제안한 인도 작가 아난드의 배려였다.



[그림3] 아세아 작가 대회 준비 위원회에서 연설하는 서만일

아시아 작가대회는 사실 국가 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반동회의와 달리 작가들에 의해 조직된 행사였고, 당시 인도에는 공식적인 인도 작가협회가 아직 없었다. 아시아 작가대회를 기획·발족한 인도 작가들이 진보적인 작가군에 속했다면 이들과 다른 이념과 문학관을 지닌 작가군도 있었다.<sup>16)</sup> 인

16) Jia, Yan, "Beyond the "Bhai-Bhai" Rhetoric: China-India Literary Relations, 1950~1990", PhD thesi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19.

도 작가들도 아직 통일된 협회를 만들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아시아 대표 작가들 사이에도 분명 의견과 입장이 분분할 것을 아난드는 예상했을 것이다.<sup>17)</sup>

‘인도의 더위에 못지않은 뜨거운 논쟁’들을 거쳐 아세아 작가대회 준비가 끝났다. 준비위원회에서는 대회 준비를 위한 서기국을 창설할 것과 아랍의 여러 국가와 이스라엘, 이집트는 물론이고 몽골과 소련도 초청하기로 결정했으며, 옵서버로 유럽의 저명한 작가 20명을 초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세아 각국에 보내는 호소문과 성명서를 채택했다.

준비에 준비를 거듭한 아세아 작가대회가 마침내 1956년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인도의 뉴델리에서 개최되었다. 아시아 17개국<sup>18)</sup>에서 275명의 각국 대표 작가들이 참석하였고, 인도에서만도 150명이 참석했다. 아세아 작가대회는 아시아를 과거의 그것과 분리하여 ‘각성된 아시아’, ‘부흥하는 아시아’로서의 신생 아시아를 호명했다. 그리고 그 신생 아시아의 새로운 정신으로서 개최되었다.

아세아 작가대회에서 논의된 문제는 1) 아세아의 전통, 특히 각성한 아시아의 제 문제 2) 자유와 작가 3) 작가와 그의 직업 4) 문학적 성과의 교류 이렇게 네 가지였다. 각국의 대표들은 각국의 문화와 예술의 제반 상황을 보고하고 이 네 가지 주요 논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과 함께 실질적인 교류 방법들을 제안했다. 이 논제들에 대한 보고는 대회 중인 12월 27일 오후에 열린 전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다음 날인 28일 오전에 중국 대표단 단장 마오둔의 사회로 진행된 폐막 회의에서 회의의 비서장인 아난드 박

17) 그의 짐작대로 비공식적인 예비 회의에서 문학의 예술성과 사회성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짧은 회의였지만 서만일을 비롯한 아시아 대표들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것 같다. 이 일은 편지를 남겨둘 만큼 서만일에게는 인상적인 사건이었다.

18) 참가국은 버마, 실론,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북한,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시리아, 소비에트 아시아 공화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총 17개국이다.

인도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는 세계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작가들을 대표로 파견했다. 참석한 작가들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작가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마오둔(茅盾), 예성타오(葉紹鈞), 라오서(老舍) / 비르마: 우 테인 페(U Thein Pe Myint)

일본: 훗다 요시오(堀田 善衛), 하다나카 마사하루(畑中政春) / 조선: 한실야, 서만일

네팔: 테브콧타(Laxmi Prasad Devkota) / 파키스탄: 파이즈 아흐메드 파이즈(Faiz Ahmad Faiz)

우즈베크: 줄피야(Zulfiya Isroilova) / 세일론: 느습스트렌슴

/ 인도: 몰크 라즈 아난드(Mulk Raj Anand), 씨 비 라오, 안나다쉬 안칼, 알리 아흐마드 수루르 등.

사가 성명(聲明)을 낭독하였는데, 이 성명을 통해 당시 아시아 작가들이 아세아 작가대회에 대해 가진 기대와 각오를 짐작해볼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아세아 작가대회의 의의가 된다. 이 성명을 통해 아세아 작가대회에 모인 각국의 대표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아시아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번 작가 회의는 **부흥하는 아세아의 정신**을 상징한 것이다— 이것은 곧 자유와 인류의 존엄성의 정신이며 이것은 자기의 광휘로운 문화 전통으로 하여 긍지를 느끼는 **아세아의 새로운 각오**이며 아세아 각국 인민이 정신상, 물질상으로 부유하고 보람찬 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결심**이다.

과거의 문화적 련계를 발양함과 동시에 현대 세계의 조건하에서 **새로운 련계**를 발전시키려는 간절하고 진지한 념원의 추동을 받아, 또는 우리들 서로 사이는 물론 아세아 각국 인민, 각계 국가와 전 세계와의 우의, 리해, 평화를 촉진시키고져 결심하는 확고한 추동을 받아 **여러 가지 같지 않은 관점과 여러 가지 같지 않은 신앙을 가진 아세아 작가들은 한 집에 자리를 같이하여 모였다**. 우리는 아세아 작가들과 학자들이 가급적 자유로이 래왕하며 의견을 교환하며 서로서로 서적을 교환하는 것으로써 이렇듯 숭고한 목표를 촉진시킬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sup>19)</sup> (볼드체는 인용자)

인용된 부분은 회의에 참석한 아시아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찬동하였던 아세아 작가대회 성명의 일부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으면서도 한 대륙에 있다는 이유로 외부로부터 편의상 호명되었던 과거의 아시아에서 벗어나 한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기획하고 있었다. 스스로가 아시아의 일원임을 인지하고 이 새로운 아시아를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나가기 위해 이들은 우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아시아의 작가들과 학자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며 서로를 알아감으로써 현재의 문화뿐만 아니라 각 아시아 국가들의 유구한 역사가 빛

19) 『아세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 아세아 작가 대회 속보』, 『문학신문』 1957.1.10.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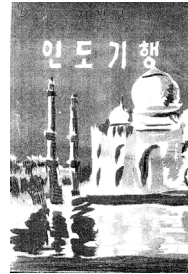
어은 문화 전통을 공유하여 새로운 아시아 문화를 합작해나가는 것, 이것이 아세아 작가대회에 참석한 아시아 대표들이 궁극적으로 꿈꾸었던 새로운 아시아의 모습이었다. 이들이 상상한 아시아는 결국 상상에 그쳐 버리고 말았지만, 아시아 전반에 걸쳐 이러한 적극적인 기획과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 의의가 있다.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즈베크의 시인 줄피야(Zulfiya Isroilova)가 제2차 아세아 작가대회를 타슈켄트에서 열 것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이 확대되어 제1회 아세아·아프리카 작가대회(AA작가대회)가 타슈켄트에서 열리게 된다. 즉, 아세아 작가대회는 AA작가대회의 모체가 되는 셈이다.

### 3. 반자본주의·반식민주의 아시아: 『인도기행』 분석

#### 1) 냉전의 횡단

『인도기행』은 북한에서 처음 발표된 ‘자본주의 방문기’였기 때문에<sup>20)</sup> 이전에 발표된 북한의 기행문들과는 그 여행 경로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만큼 북한 지식인의 인도여행은 사회주의 진영(북한, 중국)에서 자본주의 진영(비르마, 인도)으로 들어가는 즉, 냉전의 공간을 횡단하는 일이었다.



[그림4]

정말이지 우리를 『백발』로 만든 원수로 해서 우리는 공로마저 바꾸어야 했다. 지난번에 반등에서 열린 아세아 및 아프리카 회의를 앞두고 홍콩을 떠난 려객기가 국제 음모자들에 의하여 추락된 비극이 있는 후에 공로는 북경과 랑궁 사이로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델리에서 열리는 아세아 작가 대회 준비 위원회에 참가

20) 리춘영, 「(서적평) 오케르크 문학이 거둔 수확-『인도기행』을 읽고」, 『문학신문』, 1957.10.31. 3면.



기행문은 북경에서부터 시작되며, 여기에서부터 북한 대표 서만일은 델리에 도착할 때까지 중국 대표단의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배려와 안내를 받게 된다. 중국 대표단은 ‘중국의 입센’이라 불리는 극작가 조우(曹禺)와 소설가 양삭(楊朔) 그리고 통역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비르마도 인도도 초행 길일 수밖에 없는 북한 작가에게 중국 작가들은 서만일이 곧 마주하게 될 이국적인 풍경들에 대해 미리 말해주면서 ‘표면적인 것에서 이국적인 정서를 찾기보다는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해주고, 이에 서만일은 ‘작가로서의 동지애’를 느낀다.<sup>24)</sup> 중국 대표단 외에 중국 작가들은 이들이 아직 북경에 머물고 있을 때도 중간에 경유하기 위해 곤명에 들렀을 때도 뜨겁게 환대해주었다.

그런데 사실 당시 북한은 중국이나 소련을 거치지 않고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를 갈 수 없었다. 교통편이 가장 큰 문제였겠지만, 그것 외에 입국사증을 받기 위해서라도 북한은 중국을 거쳐야만 했다. 북한은 아직 대사를 파견하지 못했고,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다른 대사관들도 없었으므로 중국 주재 인도 대사관과 비르마 대사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르마 역내로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랑궁 비행장에 도착하자 중국 대사관원들이 중국 대표들과 조선 대표를 영접하여 주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나는 외국에 나오는 차로 슬기로운 중국 인민 지원군들의 형제인 중국 외교관들한테서 따뜻한 배려를 받은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지난날 주권을 못 찾았을 때는 나라 없는 슬픔이 제일 가슴에 사무쳤지만 지금에는 몇몇한 인민의 대표로 외국에 가면서도 거기 남들처럼 조국의 외교관이 마중 나와 주지 않을 때처럼 서운한 일이 없다. 이럴 때 우리를 위안하여 주는 것은 중국 대사관 동무들이다. 나는 몇 해 전에 스칸디나비아를 려행했을 때 스톡홀름에서도 오슬로에서도 이렇듯 중국 형제들의 우정을 느꼈다. 그리고 이번 길에서도

24) 국제열차로 갈 수 있는 월남과 달리 인도는 도착하기까지 그 경로가 여러모로 복잡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대표단을 최소한으로 꾸릴 수밖에 없었으므로 준비위원회에는 서만일이 조선 대표로 참석했고, 본 대회에는 한설야와 서만일 두 사람이 조선 대표단으로 구성되었다.

랑궁, 델리, 칼커티에서 역시 중국 대사관원들과 령사관원들의 친절한 안내와 잊을 수 없는 환대를 받았다.(33~34)

서만일이 회고하고 있듯 이런 상황은 서만일 개인적으로도 처음이 아니었고, 당연히 당시 해외를 방문해야 했던 대부분의 북한 지식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해야만 했던 문제였다. 아시아의 약소국의 처지를 실감하는 순간들이었다.

중국은 북한을 형제 국가로 대했던 만큼 중국 역내에서 서만일은 북한 대표로서 중국 작가들의 환대를 받았고,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서만일에게는 중국의 긍정적인 측면만 제공됐다. 그리고 이제 중국 역내를 벗어나 자본주의 역내로 들어가면서부터 걸리지 않음은 있는 그대로의 아시아를 접하게 된다.

비행기 연료 공급을 위해 만다레에 들렀던 것을 제외하면 자본주의 진영에서 처음 마주한 곳은 비르마 랑궁이었다. 이들이 내린 랑궁 비행장에는 ‘오만하게 성조기를 그린 미군 군용기’가 세워져 있었고, 곁에는 선글라스를 낀 미국 비행사 서넛이 떠들고 있었다. 입국사증을 확인받기 위해 승객들이 모여 기다리는 객실에는 맨발의 흑인 보이가 사람들 사이를 그림자처럼 누비며 거대한 선풍기를 틀어준다.

서만일은 북한이 키운 1세대 엘리트였다. 1947년 소련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모스크바로 유학을 갔고, 고리키문학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정전 협정 직후였다. 즉, 그는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며, 미군을 직접 볼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전쟁 기간 내내 그는 멀리 타국에서 전쟁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고,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간접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었다. 그런 그가 자본주의 역내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미군이었고, 상상 속에서만 증오로 싸우던 미군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때 한 백인 미군 장교가 근처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는 시종일관 세 명의 동양 소녀를 옆에 끼고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10대 초반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세 소녀는 모두 국적이 달랐는데, 한 명은 일본 ‘무스메(むすめ)’ 같았고, 또 한 명은 인도네시아나 세이론에서 온 것 같았으며, 나머지 한 명은 인도 전통복장을 한 것으로 보아 인도 소녀 같았다. 증오스러운 미군 장교와 미군 장교에게 마지못해 억지웃음을 팔고 있는 듯한 이 소녀들을 지켜보던 서만일의 생각은 한국전쟁기로 거슬러 올라갔다.

필경 저렇게 희멀끔한 놈들이, 필경 저렇게 노랑 수염을 기른 놈들이, 필경 저렇게 다치기만 하면 허리가 두 동강이로 부러질 듯이 키가 큰 아메리카 장교놈들이 아름다운 내 조국 향토를 짓밟으려고 하였으리라. 하긴 저놈이 조선의 소녀를 어머니의 품에서 앗아다가 어디로 끌어 간 놈인지도 모른다…(31)

서만일은 미군 장교와 세 동양인 소녀를 젠더적인 관점이 아닌 반식민주의적 시각에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미군 장교가 제국주의 열강을 상징한다면, 세 동양인 소녀는 미 자본주의에 복속된 채 억지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아시아 약소국의 상징이었다. 이때 다른 두 소녀와 달리 인도 소녀는 일관되게 미군 장교 곁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빈 동공으로 허공을 바라보곤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어쩌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인도를 향해 가고 있는 서만일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자본주의 역대로 들어가면서부터 북한 대표와 중국 대표들은 영국 민간 항공을 타고, 영국인이 운영하는 호텔들에서 묵었다. 비르마는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아프리카 연대를 주도하며 국제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 인도는 또한 엄연하게 독립 국가였으나 인도의 경제는 얼핏 보기에도 영국 자본주의에 장악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서만일에게 또 다른 식민주의적 상황으로 읽혔을 것이며, 비르마와 인도가 극복해내야 할 과제로 보였을 것이다.<sup>25)</sup>

25) 서만일은 랑공의 호텔방에서 이라와티강 부두를 바라보며 독립은 하였으나 불안정한 정세와 계속되는 내전 등으로 복잡한 비르마 곳곳을 제국의 자본들이 장악해가는 것을 보며 예수에 잠긴다. “이 마스트 끝에 어수룩한 장터를 찾아서 탐욕의 눈을 번득이는 장사치 나라들의 국기가 비에 젖어서 누더기처럼 휘주근한 채 펄럭거린다. 그중에는 일본 깃발도 있다. 비 내리는 이라와티 강물, 황혼 속에 안겨드는 남방 부두의 정서!” (위의 글, 48쪽.)

랑궁은 국제적인 도시였다. 서만일 일행이 묵었던 영국호텔 ‘스트랜드 호텔(Strand hotel)’의 식당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곳에는 각국의 음식이 뷔페(buffet)식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각각의 음식에는 해당 국가의 국기가 꽂혀 있었다. 비르마 사람, 영국인, 중국 사람, 아프리카 흑인, 토이기 사람, 애급 사람, 미국인, 일본인들이 뒤섞여 앉아 있는 호텔 식당을 보며 서만일은 ‘인종 전람회’를 떠올린다. 동시에 ‘조선 요리가 아직 여기까지 뻗쳐질 리도 없을’ 것이라며 대신 중국 음식을 주문한다. 아시아 약소국으로서의 북한의 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오히려 사회주의 형제 국가인 동구권을 방문하는 중이었다면 약소국민이라는 처지가 훨씬 희미하게 다가왔을지도 모른다.

서만일의 여정은 랑궁 비행장에서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한 셈인데, 그 연장선상에 영국 민간 항공의 ‘친절한 서비스’도 놓여 있다. 기행문에 기록된 당시 기내 풍경은 오늘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안내결’(스튜어디스)이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비상시 구명조끼 착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승객들의 안전벨트를 점검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식사와 음료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블라우스와 단정한 유니폼에 작은 모자를 비스듬히 쓴 안내결들은 시종일관 상냥한 미소를 머금고 승객들을 대했는데, 서만일의 눈에는 무엇보다 이 ‘친절한 서비스’가 불편했다. 몇 페이지에 걸쳐 영국 항공의 ‘친절한 서비스’에 대해 서술하면서 특히 『‘상냥스러운’ 미소로 불우물을 만들 것도 잊지 않는다’, ‘안내결은 여기서 또한번 미소를 지었다’, ‘영국 녀인은 또다시 불우물을 줬다’ 등등 스텐디스들의 미소를 반복해서 지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인지 비행기 안은 어딘가 모르게 서먹서먹하며, 랭랭하며, 어색하다. 왜 그럴까? 이런 번다한 형식적인 그 무엇이 되려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며 무뚝뚝하게 만들지 않는가?

나는 언제인가 헬싱기로 날아갈 때 몇분만에 꿈을 주어 짙근짙근 썩게 하던 필란드 안내결을 본 적이 있으며 윈나로 날아갈 때 위스키니, 진이니, 코냐크니 하는 것들을 연송 권하던 오지리 안내결을 만난 적이 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은 느낌을 어떻게 하는 수 없었다.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돈에 매워서 마지못해 웃는 사교적 불웃음에는 감동되지 않는 습관이 있나보다. 그것이 비록 소박하여 호화롭지는 않다 해도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대우일 때에만 즐거운 우리들의 품성인 듯 싶다.(57)

직업정신이 투철한 스텐더디스들이었을 수도 있겠으나 서만일은 이미 그들이 자본주의의 산물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서비스는 ‘형식적’인 과정들이며, 돈에 저당 잡힌 가짜 친절이자 가짜 미소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인도에 도착해보니 수도 델리의 절반이 영국화되어 있었다. 뉴델리는 1911년에 영국이 조성한 계획도시였던 만큼 도시의 형태나 건축양식 등이 서구식이었고, 전통 구도심인 올드델리와 비교했을 때 당연히 훨씬 깨끗하고 쾌적했다. 대통령과 수상의 관저를 비롯하여 정부 중앙 청사, 방송국, 각국 대사관을 비롯한 외국인 별장, 구라파식 상점가 등이 들어서 있는 인도의 현 중심지였다. 서만일과 각국 대표들 역시 행사기간 동안 뉴델리에 있는 정부 전용의 스테트 게스트 하우스라는 소위 국민 호텔에 머물렀다. 그렇지만 서만일의 눈에 뉴델리는 철저히 자본주의적 문화가 지배하는 공간일 뿐으로, 인도의 전통은 지워진 채 철저히 자본주의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구획되고 채워진 곳이었다. 그에게 올드델리가 ‘인도 민족 문화와 풍속의 요람지’였다면 뉴델리는 ‘서구라파식 모방과 유행의 온상’이었다.

인도의 전통이 삭제된 공간이라는 측면도 문제였지만, 서만일은 뉴델리가 ‘부유한’ 사람들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이 가장 불편했다. 부유한 외국인들, 부유한 귀족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곳이나 동일한 인도 땅임에도 이곳에는 인도의 빈민들은 들어올 수 없었다. 뉴델리 상점에 인도 빈민들이 들어갈 수 없고, 영국인 호텔에 인도 노동자들이 발 들일 수 없다. 작가는 비록 랑궁 비행장에서 맨발로 그림자처럼 일하고 있는 ‘흑인 보이’를 보면서도, 영국인 식당에서 주문은 영국인이 받고 손님 시중은 인도인들이 도맡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문제인식을 느끼지 못했(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뉴델리를 마주하면서 단순히 자본주의화의 문제가 아닌 식민주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지적

하기에 이른다.

## 2) 신생 아시아 인도의 과거, 현재, 미래

서만일은 인도를 신생 아시아의 상징으로 보았다. 이는 비단 서만일 개인의 시각이라기보다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본 ‘신생 아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그는 그 안에서 무엇을 읽어냈을까. 본 장에서는 서만일의 눈에 비친 인도, 그리고 그것을 통한 아시아 인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인도기행』은 북한 최초 ‘자본주의 국가 방문기’라는 독특한 이력 외에도 대상 국가(인도)의 감추고픈 어두운 면들을 적잖이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여타 기행문들과 변별되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인도기행』이 출판될 당시 북한에도 이미 발표된 기행문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소련방문기’, ‘중국방문기’, ‘동유럽 사회주의국 방문기’ 등과 같이 사회주의 우호 국가 친선 방문의 결과물들이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인 만큼 주최 측에서 준비해둔 일정에 따라 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측면들만을 볼 수 있으므로 기행문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서술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서만일의 인도 방문은 친선 방문이 아니었고, 아세아 작가대회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기획되고 추진된 행사가 아니라 뜻을 함께한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행사였기 때문에 그는 좀 더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의 인도를 볼 수 있었다.

한편, 서만일은 인도에 체류한 2주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인도 작가들과 깊이 교류(交遊)하였는데, 이 또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다. 인도 작가들의 적극성 덕분이기도 했겠지만, 부드럽고 조용하면서도 열정적인 동시에 타인과 타문화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던 서만일의 개인적 성격이 중요하게 작용한 결과였을 것이다. ‘아세아 작가대회’의 기획자 아난드(Mulk Raj Anand)와의 만남도 이번 인도 여행에서의 중요한 수확이었지만, 서만일이 『인도기행』에서 내내 ‘나의 벗’이라 불렀고, 귀국 후에도 책상 위에 함께 찍은 사진

을 두고 보며 그리워했던 인도 작가들은 빠  
 람하 난다 판다(Brahmananda Panda), 안니  
 예 조세프(Annie Joseph), 발완트 가르기  
 (Balwant Gargi)<sup>26)</sup>였다. 이들은 각자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을 내서 수시로 서만일을  
 찾아왔고, 인도의 여러 면모를 솔직하게 보여  
 주고 들려주었다. 비슷한 연령대에 작가라는  
 공통점과 거기에 문학적 지향도 맞아떨어져  
 단시간에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  
 을 것이다. 덕분에 서만일은 이들을 통해 외  
 국인으로서 보지 못하거나 간과하기 쉬운 인도의 진짜 모습들을 볼 수 있  
 었다.



[그림3] 인도 극작가  
발완트 가르기

『수천만 인도 인민의 창자를 위협하는 기아는 비단 벵갈 지대에만 도사리게 아  
 니지요. 내 고향 오리야주에도 그 무서운 그림자는 떠난 적이 없답니다. 당신은  
 인도 농촌에 가보았습니까? 꼭 가보십시오. 농촌을 모르고는 진정한 인도의 모습을  
 모를 것입니다. 당신은 거기서 최들최들 근육이 말라 붙은 인도 농민들을 볼 것입  
 니다. 처음에 당신은 그들이 여위고 마른 것을 더위 탓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를 것  
 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양이 부족한 때문이랍니다. 지방에 따라서  
 는 한 해에 네모작을 하는 풍요한 땅에 발붙인 인도 농민들이 어찌서 하루에 한  
 끼만을 먹어야 합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118~119)

26) 인도의 저명한 작가이자 극장 감독. 1916년생으로 펜자비주의 브하젠다라는 한적한 마을에서 농민  
 의 아들로 태어났다. 거기서 중학을 마치고 라흐르에 있는 펜자비 대학 문과를 졸업했다. 학창시절  
 영어로 시와 소설을 습작했으나 직업 작가가 된 후부터 모국어인 펜자비어로 창작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1943년 텔리에 인민극장이 창립되고 이곳에서 전문적으로 극작에 종사하게 되었다.  
 조선에 대한 단막극 『비·모』를 창작했으며 이 작품은 『청년문학』 1956년 11월호에 소개된 바 있다.  
 1957년 7~8월에 조-인 문화협회의 초청으로 인-조 문화협회 위원장 사르파와 함께 평양을 방문  
 했다. 이때(8월) 『문학신문』에 그의 단편소설 『은 구두』가 번역 소개되기도 했다.  
 (서만일, 『가르기를 내 땅에 맞으며』, 『문학신문』, 1957.08.01., 4면.)

인도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기아’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 작가는 서만일과 ‘아주 친하여진’ 뿌람하 난다 판다이다. 그는 인도평화옹호위원회 위원이자 오리아주 진보작가협회의 서기장이며, 『푸라브하티(Prabhat: 새벽)』라는 문예지의 주필로도 활약하고 있는 청년 작가이다. 판다가 지적하고 있듯 인도의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는 외국인의 눈에는 대부분의 인도 인민들은 상당히 마른 편이고, 그들이 이렇게 마른 것은 몹시 더운 인도의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서만일뿐만 아니라 한설야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인도의 인민들은 과도한 노동을 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식량으로 연명하고 있었으며 분명 인도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반증이었다. 판다는 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의 내막을 인도의 인민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조선의 벗에게 토로했을 것이다. 그는 이어서 외국인으로서서는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며 현재 인도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에 영국 식민주의가 있음을 지적한다.

『아니 저걸 보시란 말입니다. 저기 저 사람을 말이요!』

하며 판다는 손끝으로 말하려는 대상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거의 알몸뚱이를 드러내놓고 거죽을 쓴 늙은이와 젊은 녀인 너댓이 고성 란간에 기대여 서서 물끄러미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언저리는 폭 패웠고 뺨은 더할 나위 없이 파랬었다.

『피난민들이지요. 一九四七년에 있는 비극의 희생자들입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로 민족이 분열되던 참극의 희생자들이란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파키스탄에서 육친들을 살해 당하고 가장집물을 약탈 당한 채 이리로 쫓겨온 힌두교도들이지요. 당신은 그것이 종교 싸움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당신은 잘 알 것입니다. 누가 인도 민족을 동족상쟁으로 몰아 냈으며, 어떤 검은 손길이 한 심장을 두 개로 쪼개 내려고 하고 있는지?…』(121)

표면적으로는 서만일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 역시 실상 인도 인민들을 향한 호소였다. 판다는 자신이 문학을 하는 이유가 인도 인민들에게 ‘자기를

을 굶주리게 한 자'가 누구며 '어떤 제도'로 인해 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즉, 그의 문학과 예술은 인도 인민의 민족적 자각심과 계급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계몽사업이었다. 판다를 비롯한 인도의 작가들은 모두 인도의 여명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었다.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균형추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나 국내적으로는 여러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들을 앓고 있었고, 그에 대한 희생은 오롯이 인도 인민들의 몫이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인도의 작가 지식인들은 현재 인도가 앓고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파악하는 한 그 문제의 끝에는 영국 식민주의가 있었다.

한편, 인도에서 비교적 제약 없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서만일은 기회가 될 때마다 혼자라도 인도 거리로 나가 여기저기 거닐며 인도를 더 자세히 보려고 노력했다. 델리에서는 인도의 벚들을 통해 인도 인민들과 그들의 삶을 더 잘 볼 수 있었다면, 귀국길에 들른 칼커탈에는 뉴델리보다도 더욱 자본주의화 된 상업 중심지였던 만큼 삶의 끝자락으로 내몰린 인도의 빈민들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다.

칼커탈에서 서만일이 묵었던 호텔은 “그레이트 이스트(Great East)”라는 영국인 호텔로 미국식 8층의 커다란 건물이었으며 그의 방은 7층에 배정되었다. 비르마에서도 인도에서도 이렇다 할 호텔들은 대부분 영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이었고, 이들은 도심 한복판이나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심코 내다본 창 아래에는 생계를 위해 맨땅에서 홀로 곡예를 하고 있는 인도 소년이 보였다.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에 그의 위험천만한 곡예는 중단되었지만, 그를 바라보던 서만일은 가슴속에서 무엇이 찢어지는 듯한 이픔을 느낀다. 이것은 ‘인간 육체의 잔인한 혹사’요,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다. 무엇이 이 소년을 거리로 내몰았을까.

나의 눈초리는 문 듯 맞은편 5층 건물 한간방에 머물렀다. 거기서 그만 나의 시선은 못박혀지고 말았다. 내려다보이는 광경인지라 방안 설비는 잘 드러나 보이

지 않았으나 바로 선풍기 아래인 듯한 곳에 흰 침대가 놓여져 있고 그 우에 잔등을  
 뽕땀 드러내 놓은 녀인이 배를 대고 누워 있었다. 그것은 백인종 녀인이었다. 그는  
 책을 펴놓은 듯 머리를 가웃이 쳐들고 무엇인가 대구 입안에 돌팔매하듯 처넣고  
 있었다. 저 흰 요녀가 바로 인도 소년을 턱으로 거닐게 한 죄악의 장본인이 아니던  
 가?(210~211)

서만일은 ‘백인=자본주의 열강’이라는 도식적인 시각으로 인도를 보고 있  
 었기 때문에 자기방에서 책을 읽던 백인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녀’  
 가 되고 ‘죄악의 장본인’이 된다. 칼커티의 밤은 더욱 비참한 정경을 드러내  
 는데, 도시의 유랑하는 빈민들이 하룻밤 몸 누일 곳을 찾아 문 닫은 상점 추  
 녀 밑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거적조차 덮지 못한  
 채 보도 위에 자리를 잡고 잠을 청했고, 아침에는 곤한 잠에서 쉽사리 깨지  
 못했다. 칼커티 곳곳의 도시 빈민들과 헐벗은 농민들을 보며 서만일은 지체  
 없이 그 원흉으로 영국 식민통치를 지목하며 그들의 죄상을 규탄해야 한다고  
 분노한다.

이렇듯 서만일은 현 인도가 겪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이 전적으로 영국 식  
 민통치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의 관점에서 인도 인민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인도 인민들의 나태함과 의존적인 태도를 지적한 한설야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던 셈이다.<sup>27)</sup> 서만일은 오히려 인도 인민들이 내리찍는  
 피약벌에도 지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자칫 지나친 오지랖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타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조차 풍부한 호기심이자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보았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며 움직이고 있는 떠들썩한 올드 델리

27) 한설야, 『(기행) 애급의 전승 기념일-영웅 도시 포트사이드에서』, 『청년문학』 24, 1958.04.18, 쪽.  
 아래 인용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지명은 피하고 있으나 한설야의 다른 글들을 참고했을 때, 인도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아세아의 락후한 지방인 열대 또는 아열대 지방에 가면 거지가 옥신거리고 빛다른 사람만 보면  
 손을 내밀며 무엇이든지 달라고 애걸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길을 물어도 길 물어 값을 달라고 하  
 고 사진을 찍어도 얼굴 벌린 값을 달라고 한다. … 또 도시들에서도 역시 그럴 뿐 아니라 주민의  
 적지 않은 부분이 하는 일 없이 거리 길바닥에서 자고 깨며 배고프면 거렁이질하고 피곤하면 풀밭  
 이나 사원이나 공원 같은 데 자빠져 낮잠을 자곤 한다.”



한복판에서 그는 인도의 과거와 현재와 내일을 본다. 그가 보기에 인도는 인민들이 설계하고 의지를 가다듬는 그런 내일을 향하여 코끼리처럼 대지 우에 기둥 같은 발을 붙이고 믿음직스럽게 걸어가고 있다.<sup>28)</sup> 그렇지만 인도가 미래를 향해 우직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그의 견해는 인도에 대한 일방적인 믿음에 가깝다. 영국 식민통치라는 분명한 적이 설정됨으로써 여러 복잡한 문제들은 괄호 안에 묶여버린 셈이기 때문이다.

그래 나는 인도에서 무엇을 보고 왔는가?

내가 보고 들은 것—그것은 『여우처럼 교활한 인민의 변절자』를 맞대고 『조심해라! 더러운 것 간대! 문둥이 간대!』 하고 격노한 인도 인민들의 모습들이며 그들의 기운찬 항의의 웨침이었다.(18)

그는 델리역 앞에서 수에즈 운하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간섭을 규탄하는 동시에 이집트 인민주권 옹호를 지지하는 군중들을 보며 그들에게서 인도의 미래를 보았다. 민족의 행복과 인민들의 평화적 공존과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정책을 규탄하는 인도의 남녀 청년들에게서 서만일은 ‘신생 인도의 정신과 기개와 포부’를 보았노라 고백한다.

결국, 서만일이 인도를 통해 본 신생 아시아는 독립하였으나 언제든 서구 자본의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을 분별하고 그것에 저항의 목소리를 내며 느리지만 묵직한 걸음걸음으로 온전히 독립한 아시아를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 4. 북한의 아시아 인식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비로소 아시아 국가들은 ‘아시아’를 인식하게 되

28) 서만일, 『인도기행』, 157~158쪽.

었다. 오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주권을 되찾게 된 다수의 신생 아시아 국가들은 미소로 양분된 냉전체제가 점차 고착화되어가는 국제 정세 속에 양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동시에 어렵게 되찾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 스스로를 지킬 힘이 필요했다. 이에 아시아 국가들은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비로소 ‘아시아’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도의 가장 늙은 시인이며 국회 의원인 카카 칼레르발이 사회를 했다. …(중략)…

백발의 로인은 자기 개회사에서

『마침내 우리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때는 왔습니다. 아세아 인민들은 드디어 긴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세아 인민은 지난날에 분열되고 찢기우고 압박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자유와 주권을 찾고 단결된 위대한 힘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민들로 하여금 탄탄한 대로를 힘차게 걷게 하며 이미 전취한 자유와 주권을 내어 놓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작가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예술을 제공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감명 깊게 말을 하여 모든 사람들을 흥분 속에 설레이게 했다. (89)

칼레르발의 말처럼 아시아의 인민들은 외부세력에 의해 분열되고 억압당하던 민족이었다. 그러나 종전 후 독립하게 된 신생 아시아 국가들은 식민의 역사를 비슷하게 겪은 서로를 인지하게 되면서 공동체로서의 아시아를 보게 되었고, 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진정한 독립은 경제적 자립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서구의 원조 없이 독자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으려면 아시아가 연대해야만 했다. 그래야 ‘아세아 인민들이 독자적으로 사고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할’<sup>29)</sup> 수 있었다. 이러한 아시아 연대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연대를 약속한 자리가 반동회의였다면, 앞으로 구축해갈 아시아의 실체를 문화를 기반으로 공동기획한 자리는 아세아 작가대회였다. 북한 대표

29) 서만일, 『인도기행』, 89쪽.

로서 아세아 작가대회 준비위원회와 아세아 작가대회에 모두 참석했던 서만일은 이 대회에 대해 ‘그것은 다름아닌 아세아에 도래한 새로운 시대의 표식이며,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옹호하는 인민들간의 친선과 우호의 관계가 성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했다.<sup>30)</sup>

아세아 작가대회 준비위원회 참가를 위해 떠났던 여정을 통해 서만일은 중국, 비르마, 인도라는 아시아를 경험했다. 중국의 경우 중국 대표단과 중국 작가대표단의 적극적인 안내로 그들이 허용하는 장소들만 경험할 수 있었다면, 비르마와 인도에서는 날것에 가까운 인민들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비르마와 인도 즉, 신생 아시아는 정치적으로는 독립하였으나 아직 경제적으로는 영·미제국주의에 복속되어있었고, 아직 국내적으로도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았다. 그러나 동시에 자국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민들을 계몽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문화 교류를 통한 아시아 연대를 기획하고 상상하는 지식인들과 제국주의의 불의에 항거하는 인민들을 통해 서만일은 그들에게서 미래를 발견했고, 그 역시 문화를 통한 아시아 연대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정말이지 역사적으로도 동방 민족들은 인류의 보고로 된 찬연한 문화적 업적들을 허다하게 남겨 놓았다. 고대 인도의 조형 예술이나, 중국의 고대 철학에 대하여서는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기로 하자. 손쉽게 근대의 명작가만 꼽더라도 얼마나 큰 인물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결코 아세아 민족들의 높은 정신적 창조물들을 그저 과거의 것으로 파묻어 둘 수는 없다. (92)

그처럼 타즈 마할은 우아하고 화려해서 건축과 조각의 한계성을 그을 수 없었다. 실로 이 동방 나라 옛말 속의 궁전 같은 묘(墓)야말로 건축가들의 천재를 집대성한 것이었다. (159)

30) 위의 글, 91~92쪽.

이 시기 대다수의 아시아 지식인들도 마찬가지로였겠지만 서만일은 이제 막 아시아를 경험해나가는 중이었다. 아직 아시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다만, 『인도기행』에는 과거 그중에서도 고대에 가까운 아시아를 ‘동방’으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눈에 띈다. 서만일이 이 용어를 의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현재의 아시아를 ‘신생 아세아’로 호명할 때에는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닌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주의적 개념으로서의 새로운 아시아를 지칭했다.

서만일로 대표되는 북한 지식인의 아시아 인식도 당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차이가 있었다면 어디에 방점이 찍혔는가 정도가 될 것이다. 아세아 작가대회를 기획하고 발기한 인도와 중심 세력이었던 중국의 경우에는 그간 단절되었던 아시아 국가 간의 문화 교류를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물론 대회 준비기간부터 대회 내내 반식민주의가 언급되기는 했지만, 이는 진행중인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적 상황을 만든 근원이자 과거 현상이었기 때문에 반식민주의에 기반한 정치적 결속 등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sup>31)</sup> 하지만 북한은 ‘각성한 아시아’, 신생 아시아를 바라볼 때 반식민주의의 렌즈를 통해서 보는 중이었다.

이제 막 ‘아시아’를 주목하여 인식하기 시작한 때였던 만큼 아직 북한 그리고 북한 지식인의 아시아 인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냉전기 남한의 아시아 인식이 ‘반공 아시아’였던 것처럼 이 시기 북한의 아시아 인식은 ‘평화 아시아’ 곧 ‘반식민주의 아시아’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31) Jia, Yan, “Beyond the “Bhai-Bhai” Rhetoric: China-India Literary Relations, 1950~1990”, PhD thesis, SOAS University of London, 2019.

## ■ 참고문헌

### 1. 기본 북한 자료

- 리춘영, 『오체르크 문학이 거둔 수확 - 《인도기행》을 읽고-』, 『문학신문』, 1957.10.31. 3면.  
 서만일, 『항가리 靑年祝典記』, 1949, 자필본. RG242, SA2005 6/47.  
 \_\_\_\_\_, 『인도기행』, 조선 작가 동맹 출판사, 1957.  
 \_\_\_\_\_, 『가르기를 내 땅에 맞으며』, 『문학신문』, 1957.08.01. 4면.  
 송 영, 『인도네시아 기행(2)』, 『문학신문』, 1959.04.30.목. 4면.  
 한설아, 『(기행) 애급의 전승 기념일-영웅 도시 포트사이드에서』, 『청년문학』 24, 1958.04.

### 2. 논문

- 고자연, 『한설아의 제3세계 인식』, 『상허학보』 55집, 2019.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0.  
 김성수, 『'한국-조선'문학의 탈정전화와 숙청 작가 서만일, 김창석의 복권·복원』, 『민족문학사연구』 76, 2021.  
 박태일, 『윤세평의 몽골 기행문학』, 『한국지역문학연구』, 2019.  
 백원달, 『냉전기 아시아에서 아시아주의의 형성과 재편1』,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1』,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현실문화, 2008.  
 \_\_\_\_\_, 『아시아에서 1960~70년대 비동맹/제3세계운동과 민족·민중 개념의 창신』, 『냉전아시아의 문화풍경2: 1960~1970년대』, 현실문화, 2009.  
 여정동, 『아시아는 변형하고 있다: 전개될 아시아의 새 양상』, 『청맥』 2권 5호, 1965.  
 유임하, 『1955년 북한사회의 베트남 방문과 베트남이라는 상상지리의 탈식민적 구성』, 『거레어문학』 60, 2018.  
 윤대영, 『195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 『역사와 경계』 87, 2013.  
 이상우, 『이태준의 기행문 『위대한 새중국』에 나타난 중국인식』, 『통일인문학』 67, 2016.  
 임유경, 『'오빠관'과 '조선사절단', 그리고 모스크바의 추억』, 『상허학보』 27, 2009.  
 \_\_\_\_\_, 『소련기행과 두 개의 유토피아: 해방기 "새조선"의 이상과 북한의 미래』, 『민족문학사연구』 61, 2016.

### 3. 단행본

- 이병환, 『붉은 아시아: 1945-1991 동아시아 냉전의 재인식』, 서해문집, 2019.

### 4. 기타

- Се Ман Ир. *Моя Корея*. Библиотека Огонёк № 4, 1953.  
 Jia, Yan(2019) "Beyond the "Bhai-Bhai" Rhetoric: China-India Literary Relations, 1950-1990", PhD thesis, SOAS University of London.  
 Steve Tsang, "(Research Note) Target Zhou Enlai: The "Kashmir Princess" Incident of 1955", The China Quarterly, 1994.

## North Korean Intellectuals' Perception of Asia During the Cold War

—Focusing on Seo Man-il's *Travel to India*(1957)—

Ko Ja-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ltural exchange patterns of Asian intellectuals at the time based on the North Korean travelogues in the mid to late 1950s, to clarify their perceptions of Asia, and to contextualize the cultural communication they constructed on the Asian new prospect. In addition, it will be possible to elucidate the practical context of Cold War Asia. In the meantime, travelogues, especially Asian travelogues, have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North Korean literature research and have not been properly identified.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North Korean travelogues in Asia in the mid to late 1950s. This paper corresponds to the first study, and the main text is Seo Man-il's *Travel to India*.

Seo Man-il's *Travel to India* is an important text in that it deals with the 'Asian Writers' Convention, one of the major events of the 'Asian Solidarity' that began in earnest in the mid-1950s. In addition, Seo Man-il has served as chairman of the Foreign Literature Subcommittee under the Joseon Writers' League, vice-chairman of the Chosun(North Korea) Writers' League, and vice-chairman of the Chosun-Indian Cultural Association. Seo Man-il served as chairman of the Foreign Literature Subcommittee under the Chosun Writers'

---

\* Frontier College, Inha University

Alliance, vice chairman of the Joseon-India Culture Association, and was an important writer in North Korea in the 1950s, creating works of various genres such as plays, poems, children's poems, and reviews. And because he was one of the first students to study abroad in the Soviet Union from North Korea, so was fluent in Russian and active as a translator. However, after the purge in 1959, it was not reinstated, and it was not studied properly.

Through *Travel to India*, the following contents were considered. First, the 'Asia Writers Contest', which has not been studied properly, has been summarized. Next, *Travel to India* was North Korea's first "visit to capitalist country," so the travel route was inevitab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North Korean travelogues. In this study, the process of entering the capitalist camp (Burma, India) from the socialist camp (North Korea, China) was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traversing the Cold War'. Then, looking at India reflected in Seo Man-il's eyes, we investigated his perception of India and his perception of Asia. It is characteristic that he showed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other foreigners who traveled to India.

**Key words:** North Korean travelogues, 1950s, Cold War, perception of Asia, Asian Writers Conference, Seo Man-il, *Travel to India*